

現代社會에 서의 國民主權問題

—政治的 無關心 現象과 관련하여—

李 宗 律

The Problem of Sovereignty in Modern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Mass' Apathy—

Lee Jong-yool

〈目 次〉

- | | |
|---------------------------|---------------------|
| I. 問題의 제기 | 나) 政治的 無關心·非政治的 有關心 |
| II. 完熟社會에서의 政治過程 | IV. 政治的 無關心과 大衆媒體 |
| III. 人間生存過程에 비추어 본 政治的無關心 | V. 끝맺으며 |
| 가) 政治的·意識的 存在로서의 人間 | |

Abstract

Nowaday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ideal of sovereignty is almost becoming just nominal. The reason for that can be easily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voting, the most basic mea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sovereignty, is becoming farcical.

On the premise that the nominalization of the ideal of sovereignty results from the bureaucratic tendency of the political system, this study gives the primary attention to the mass' apathy, which is becoming almost ordinary in the society of bureaucratic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needed to notice that that the mass' political apathy today becomes accelerated from the anti-function of mass media.

Under the circumstances how can we achieve the vitalization of sovereignty? For the ques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sovereignty can be realized along with the recovery of

humanity when the political system stops the governing forms favorable to mass' alienation.

I. 問題의 제기

現代의 憲政狀況에서는 선거권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大衆(國民)이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길도 선거(혹은 국민투표) 형식으로 制度化되어 있으므로 現代를 大衆民主主義 時代로 命名할 수 있다.¹⁾ 現代의 憲政狀況에서는 大衆(國民)이 政治過程에 參與할 수 있는 方法이 이렇게 制度化되어 있으므로 大衆民主體制의 이념적 토대인 國民主權理念이 現實化될 수 있는 法的·政治的 條件의 形式과 관련해서는 異議가 제기될 수는 없다.

그러나 國民主權理念이 국민(대중)의 생활과정에서 살아있는 現實이 되는 데는 어려운 形式的 條件만으로는 충분치 못함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선거는 실질적인 선택이 아닌 환상에 불과하다. 투표장에서 결정되는 정권은 지지표를 획득케 한 공약에 의해 구속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적 형식은 지켜져 왔으나, 이미 생활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어진 것이다.²⁾

보통선거권이 부여되고, 훌륭한 국회의사당이 건립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민주적으로 행사·운영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사회=정치적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³⁾

現代 大衆民主體制의 이념적 토대인 國民主權理念이 국민(대중)의 生活속에서 살아있는 現實로 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가 선거(투표행위)이다.

그런데 선거(투표행위)의 現實的 意味가 이렇게 解釋될 수 있다면 現代의 憲政狀況에서 國民(大衆)의 主權은 살아있는 現實로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國民(大衆)의 主權이 살아있지 못하는 憲政狀況이라면 政治過程에서는 필연적으로 非民主性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고 非民主화된 政治過程속에서 전개되어지는 政治關係는 당연히 소외형태를 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⁴⁾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가 理論的으로 제기되어 질 수 있다.

첫째로 現代憲政體制의 形式論理로 볼 때 國民主權의 名目化現象=國民(大衆)의 政治疎外現象은 原則的으로 實在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大衆의 政治疎外現象으로 解釋할 수 있는 憲政狀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國民主權理念의 名目化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C. W. Mills는 大衆을 公衆과 區別하면서 大衆을 경멸적인 의미로 定義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大衆을 民衆(혹은 國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C. W. Mills, *The Power Elite*(파워 엘리트), 진덕규역(한길사, 1979), pp.403~406 참조)

2) C. Julien, *Le Suicide des démocraties*(민주주의의 자살), 유기성 역(청사, 1980), p.122.

위의 引用이외에도 Julien의 위의 책 여러곳에 同榜의 意見이 開陳되어 있다(p.87, 116~117, 120, 124, 185 등).

3) 小林直樹, 憲法の構成原理(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81), p.189.

4) 疎外(Alienation)라는 用語의 보편적 개념은 아직도 정립된 상태가 아니기에 論者들에 따라서 이 用語의 意味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人間性을 상실한 狀態의 삶이라는 의미로 이 用語를 使用하겠다.

다음으로 國民의 主權이 名目化되어서는 안되는 體制에서 國民의 主權이 名目化되고 있다면 왜 그러한 現象이 충분히 大衆(國民)으로부터 認識・治癒되지 않고 있는가라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大衆民主體制에서의 國民主權 問題를 이런 視角으로부터 再吟味하기 위해서는 現代社會의 구조전반과 그 틀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現代人의 生存過程의 變證關係를 法的, 政治・經濟的 측면 그리고 哲學的・歷史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分析・解明할 때 理論의 科學性도 確立되고 實踐的 代案도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論者의 力量으로서로는 도저히 거기에 미칠 수 없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는 論文의 전개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制限시키겠다.

① 國民主權 名目化現象의 構造的 原因은 산업사회의 구조 그 自體論理에서 부터 거의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政治體制的 關照化경향에 있다는 입장에서 그것의 現實妥當性을 간략히 제시하겠다.

② 이러한 構造的 要因으로부터 大衆의 政治疎外가 발생되어 대중은 政治的 無關心속에 埋沒되는 데, 政治的 無關心이란 人間生存 그 自體를 否定하는 疎外된 意識形態라는 사실을 人間生存過程의 存在論的・意識的 측면에 대한 간단한 說明으로부터 發見해 보고자 한다.

③ 國民主權 名目化現象=大衆의 政治疎外現象이 大衆側으로 부터는 政治的 無關心形態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社會的 病理現象이 除去되지 않고 있는 原因 가운데의 하나가 大衆媒體의 逆機能에 있다는 점을 덧붙임으로써 國民主權의 活性化를 위한 조그만 실마리를 찾아보기로 하겠다.

II. 關照社會에서의 政治過程

國民主權理念이 實踐的으로 發現될 수 있는 政治體制가 大衆民主主義體制이고 보통선거제도(혹은 국민투표제도)는 그 體制를 움직이는 수레바퀴이다. 그런데 現代의 憲政狀況에서는 이 바퀴가 正常的으로 作動되지 않고 있으므로 大衆民主體制的 理念的基盤인 國民主權理念이 名目化될 수 있음은 문제로 제기하였다.

憲法規範과 憲法現實과의 괴리사태인 國民主權의 名目化現象=국민(대중)의 政治疎外現象의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國民主權 名目化現象의 가장 根本的인 原因은 政治的 場의 民主化=(大衆의) 政治的 解放을 필연적인 歷史的 現實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産業社會의 經濟論理 그 自體속에 政治的 場의 民主化를 抑止시켜야 될 二律背反性이 同時的으로 胞胎되어 있었다는 데서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現代의 大衆民主體制에는 애당초부터 이러한 歷史的・現實的 要請이 어두운 그림자로서 드리워져 있었기에 大衆(國民)의 主權이 現實化될 수 있는 政治體制로 政治秩序가 재편성됨과 아울러 國民(大衆) 主權의 現實化를 억지시키려는 社會的 作用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었고 그 억지장치로서 關照제도가 生成・確立되었던 것이다.⁵⁾

5) 高橋 徹, “대중이란 무엇인가,” 풀빛편집부(편역), 대중사회와 인간문제(풀빛, 1983), pp. 235~236참조.
小林直樹, 앞의 책, p. 272 참조.

A. C. Zijderfeld, *The Abstract Society* (추상적 사회), 윤원일 역(종로서적, 1983), p. 152 참조.

관료제도는 이와같이 國民主權 現實化의 억지장치로서 生成된 歷史的產物로서 解釋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 정치사회에서는 國民主權理念은 現實化될 수 없고 政治的으로 해방된 大衆이 오히려 政治로부터 疎外된 狀況에 빠져지게 됨은 거의 當위적이었다.⁶⁾

그렇다면 大衆이 政治의 場에 吸收되어 主體的으로 政治過程에 參與할 수 있는 形式的 條件을 갖추고 있는 現代의 憲政狀況에서, 관료집단의 어떤 論據때문에 政治의 場으로부터 大衆의 實質的 排除가 可能하여 大衆의 主體的 政治參與가 不可能한 形態의 政治疎外=國民主權의 名目化가 발생되고 있을까. 그 排除過程의 論據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大衆의 公生活, 私生活을 支配하는 중심적 결정들은 政治作用이 아니라 行政(技術)作用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둘째로, 大衆의 運命과 關係되는 결정들이 단순히 행정적(기술적) 작용이라는 앞의 論據를 더욱 견고히함과 동시에 관료집단의 權力作用을 合理化시키기 위해 個個人이나 集團의 利益은 政策決定過程으로부터 배제당함이 마땅하다고 주장되어지는데, 이 論理가 바로 政策決定過程에 있어서 내려지는 판단들에 대한 관료집단(정치 전문가나 行政관료)의 合理的 判斷論이다.⁷⁾

大衆의 運命과 關係되는 결정들이 政治作用 아닌 行政(技術)作用이고 또 그것은 관료집단의 合理的判斷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료집단의 이런 주장의 정당성은 관료집단 역시 직업적 가치나 自己集團의 利益을 가질 수 있는 集團은 아닐까라는 사실을 想起시키면 그 주장의 限界性이 곧장 드러날 것 같다. 그러나 現代憲政狀況에서는 종래의 정치작용들이 行政(技術)作用으로 代替되는 傾向이 강한 만큼 정비례해서 政治의 領域이 더욱 좁아져가고 있고 또한 政治領域의 狹小化라는 節次로부터 政治의 場에 吸收되었던 大衆이 政治의 場으로부터 成功的으로 排除되고 있음은 否定할 수 없는 事實이다.⁸⁾ 그와 같은 사실은 大衆과 정치지도자(관료) 집단과의 關係를 人間的 形態의 政治關係라고는 解釋할 수 없는 증상들이 大衆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立證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사회정치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층에 있는 유명한 “권력엘리트(power elite)”들은 이른바 이미지 창조자에 의해 전문적으로 구성된 추상적 영상을 지니고 있는데 불과하다.

예를 들면 중요한 정치가들은 일상적 존재의 구체적인 경험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장소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의식속에 나타난다. 실제로 그들은 의회나 백악관 같은 전설적인 장소를 오가는 T. V. 스크린에 나오는 영상 그 이상이 아니다. 중세의 사람이 자신의 통치자를 가부장적 지배자로 생각할 수 있었던 친숙함마저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엘리트에 관한 실존적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6) 高橋 徹, 앞의 논문, pp. 239~242 참조.

小林直 樹, 앞의 책, pp. 272~276 참조.

A. C. Zijderveld, 앞의 책, pp. 153~154 참조.

渡邊幸博, サルトルの哲學(京都: 世界思想史, 1981), pp. 152~156 참조.

7) R. P. Hummel, *The Bureaucratic Experience*(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pp. 185~187, pp. 194~195.

8) R. P. Hummel, 위의 책, pp. 185~215 참조.

C. W. Mills, 앞의 책, pp. 428~429 참조.

그들은 행정사무실에 거주하며 특히 강철과 유리로 된 고층건물의 주로 맨층에 위치해 있다.⁹⁾

大衆이 정치지도자(관료) 집단에 대해 이렇게 실존적 개념조차 갖지 못하는 根因은 관료집단이 政治의 場으로부터 大衆을 排除시켰다는데 있겠지만, 大衆과 관료집단의 政治關係가 非人間的 形態로 變質된 狀況에서는 政治로부터의 大衆排除現象이 이제는 大衆 自信의 側으로부터 오히려 加速化될 수 있다는데 留意할 필요가 있다.¹⁰⁾ 그 까닭은 人間的 形態를 상실한 政治關係속에서 大衆의 日常生活이 反復化될 때는 그 관계가 大衆의 意識世界까지 支配하여 大衆이 관료집단을 神的 存在로까지 意識하는 意識倒錯現象이 發生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들은 無力感속에서 관료들의 힘이 넘치는 역할들을 知覺하기 때문에, 관료들을 거의 神的存在로 존경한다.

만약 관료들이 아니었다라면 세상만사가 산산조각나버리고 또 그들은 굶어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¹¹⁾

관료(정치지도자) 집단이 大衆의 意識世界에서 人間이 아니라 이렇게 神的存在로 意識되는 疎外된 意識形態가 大衆에게서 나타났을 때 관료주의는 神話가 되고 아울러 관료제도도 비로소 獨自의인 生命力和 運動력을 갖추고서 大衆위에 군림하기에 政治로부터 大衆의 排除도 거의 완벽한 形態로 發展하게 된다.

모든 制度란 人間自信의 產物이지만 人間の 產物인 制度가 이렇게 獨自의인 生命力和 運動력을 갖추고서 人間을 支配·統制할 수 있다면 制度內的 存在인 人間(新生兒를 상상해 보라. 出生하면서 부터 그는 기존제도에 對面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은 制度앞에 더욱 無力해질 수밖에 없으며 制度로부터 逸脫하는 行爲 그 自體가 心的 恐怖心까지 불러 일으키게 되어 人間은 더욱 制度에 얽매이게 된다. 人間이 이렇게 制度에 매달리고 있음이란 人間이 制度의 主人이 되지 못하고 制度의 奴隸로 轉落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인데 制度和 人間과의 이런 關係로부터 大衆民主體制에서의 權力集中現象에 대한 說明도 가능해진다.¹²⁾

…制度的 基底에 존재하고 있는 價値體系도 個人的 孤立感和 不安感으로 染色情緒化되기에

9) A. C. Zijderfeld, 앞의 책, p. 64.

동일한 견해를 E. Fromm도 피력하고 있다.

E. Fromm, *The Sane Socie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6), p. 120, p. 123, pp. 126~127 참조.

10) W. A. Faunce, *Problems of An Industrial Society*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1981), pp. 154~155 참조.

小林直樹, 앞의 책, p. 160 참조.

11) E. Fromm, 앞의 책, p. 127.

Fromm의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6)에서도 권력(관료)집단이 大衆의 意識世界에서 偶像化되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pp. 36~39 참조.

12) B. Ollman, *Alie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213~214 참조.

岡村英夫, “意識”, 日本政治學會(編), *政治學의 基礎概念* (東京: 岩波書店, 1981), pp. 78~79 참조.

渡邊幸博, 앞의 책, pp. 91~94, p. 156 참조.

A. C. Zijderfeld, 앞의 책, p. 144 참조.

大量宣傳・大量傳達에 의한 大衆操作도 可能하고 그결과 權力과의 一體感 培養을 통한 權力的 集中化도 가능한 것이다.¹³⁾

國民主權 理念의 現實化=(大衆의) 政治疎外止揚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權力集中 現象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現象은 아니다¹⁴⁾ 그러나 政治의 場에 大衆이 主體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一政治領域의 狹小化라는 節次를 통해서一거의 源泉의으로 湧출당하는 순간부터 政治關係는 非人間的 形態로 展開・發展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政治關係속에 大衆의 意識世界까지 埋沒되어 (大衆의 意識世界속에서) 大衆의 反省의 思考가 進行되지 못한다면 政治關係는 人間的 形態가 아니라 神話的 形態로 意識되어 制度가 獨自의인 生命力和 運動力을 갖추는 결과 特定(여기서는 關료) 집단에로의 權力集中도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現代는 嚴然한 國民主權의 時代 즉 大衆民主主義 時代이므로 政治의 場으로부터 大衆을 완벽히 배제시키는 現實的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아무리 大衆의 意識世界속에서 疎外된 意識形態가 發生되어 있더라도 權力集中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大衆의 非人間的 政治體驗이 關료체제를 現實的으로 위협할 수 있는 잠재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現代의 關료집단은 여기 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大衆民主體制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는 現代官僚體制의 다른 면모가 여기서 부터 나타나는데, 그 면모와 相關된 關료집단의 論調는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人間의 生存過程은 公的側面과 私的側面으로 兩分되는데 人間이란 本來的으로 利己의인 動物이므로 (國家)權力에 의한 合理的인 仲裁가 없다면 人間社會(國家)에서는 언제나 無秩序狀態가 지속될 뿐이어서 人間은 不安과 恐怖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人間生存過程의 公的側面과 私的側面을 均衡있게 調和시킬 수 있는 制度裝置로서의 仲裁機關은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權力作用이란 그 仲裁手段이라는 論理이다. 그런데 이 論理는 資本主義的 經濟論理가 낳은 社會的 諸問題(예를들면 富의 集中化에 따른 社會的 不安要素)와 社會主義라는 이념을 根幹으로 하고 있는 政治體制가 歷史의 前面에 實在的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오늘날 대중으로 부터 相當한 支持를 얻어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¹⁵⁾

이렇게 볼때 現代의 現狀상황에서 大衆의 政治疎外=國民主權의 名目化現象은 지워버릴 수 없는 現實로 굳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 大衆의 意識世界속에서 關료주의가 神話化되어 大衆이 關료집단을 神的存在로 意識함과 동시에 關료제도도 獨自의인 生命力和 운동력을 갖게되어 權力集中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러한 權力集中이 人間의 本性和 體制防衛라는 論據로서 상당히

13) 三邊博之, “自由”, 日本政治學會(編), 政治學의 基礎概念(東京: 岩波書店, 1981), p. 18.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政治組織이 어떻게 변모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모리스 듀벨레의 다음저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M. Duverger, 서구의 두얼굴, 김준희 역, 종로서적, 1982)

14) 秋元律郎, 權力的構造(東京: 有斐閣, 1981), pp. 65~80.

F. Ferraroti, *An Alternative Sociology*, Pasqualino(trans.)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Inc.), pp. 185~187 참조.

15) 小林直樹, 앞의 책, pp. 268~269 참조.

변호되고 있는 現實이니까. 16)

그 결과 현대의 관료제정치사회에서 大衆은 自信들이 틈나바퀴와 같은 部分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事實에 대해서 反省的思考는 물론이고 實踐的 無力까지 드러낼 뿐이고 또한 政治關係가 非人間의 形態—具體적으로 정치지도자(관료)집단을 意識하는 形態가 아니라 추상적 형태 혹은 人間이 人間을 目的으로 對面하는 것이 아니라 手段으로 對面하는 形態—로 치닫고 있는 狀況에 日常적으로 對面·接觸하면서도 反省的 思考와 實踐力喪失 때문에 大衆은 束手無策을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17)

政治로 부터 大衆의 排除→政治關係의 非人間化→政治關係에 대한 소의의식의 형성→制度의 奴隸→權力의 集中(←政治外的 變數作用)→大衆의 政治的 無力으로 순환되는 形態의 政治過程속에서 大衆의 政治疎外가 거의 완벽한 形態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가 이른바 大衆의 政治的 無關心現象, 非政治神話(the apolitical myth)의 社會化現象들이다. 18)

Ⅲ. 人間生存過程에 비추어 본 政治的 無關心

現代는 大衆이 政治의 場에 吸收되면서 排除당하고 排除당하면서 吸收되는 시대이다. 現代의 憲政狀況은 이렇게 二律背反的이므로 그러한 二律背反性이 大衆에게 露出되어 大衆이 實踐적으로 二律背反的 憲政現象들에 도전·치유함이 마땅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관료주의 神話 혹은 非政治神話의 社會化와 그에 대응하는 大衆의 政治的 無關心 現象으로부터 관료집단으로의 權力集中이 加速化되고 있고 그 現實的 結果가 國民主權의 名目化現象이라는 疎外된 形態의 政治狀況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임은 앞에서 說明되었다.

政治的 無關心이란 이렇게 볼때 人間性을 喪失한 政治關係의 產物이고 政治的 無關心現象이 社會

- 16) 人間の 本性和 體制防衛의 論據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申午鉉 編, 人間の 本質(螢雪出版社, 1980). (이 책은 인간해석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② 申午鉉, 自由와 悲劇(文學과 知性社, 1979), p. 85.
 ③ E. Fromm, *To Have or To Be*, p. 100.
 ④ 務合理作, 철학개론, 홍윤기 역(한울, 1982), pp. 165~190.
 ⑤ N. Rotenstreich, 청년탑스의 철학(한울, 1983), pp. 59~84.
 ⑥ G. Novak, 실존과 혁명, 김영숙역(한울, 1983), pp. 324~329.
 ⑦ 풀빛 편집부 편역, 대중사회와 인간문제, pp. 87~88, p. 234.
 ⑧ M. Durverger, 서구의 두얼굴. p. 138.
 ⑨ 小林直樹, 앞의 책. pp. 194~195.
 ⑩ D. J. Munro, *The Concept of Man in Contemporary China*(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pp. 1~25.
- 17) S. Giner, *Mass Society*(New York: Academic Press, Inc. 1976), pp. 189~193 참조.
 A. C. Zijderveld, 앞의 책, pp. 58~59, p. 95 참조.
 C. Julien, 앞의 책, p. 170 참조.
- 18) W. A. Faunce, 앞의 책, p. 146.
 R. P. Hummel, 앞의 책, pp. 185~209.
 小林直樹, 앞의 책, p. 163, p. 274.
 S. Giner, 앞의 책, p. 144, pp. 151~152.
 C. Julien, 앞의 책, p. 228...

化되고 있는 狀況에서의 政治關係는 人間的形態로 전개·발전될 수 없음은 自明하다.

위와같은 論理가 어느정도 眞實의인가를 究明하기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여기서부터 人間生存過程의 本質을 存在論의 그리고 意識의側面에서 간략히 說明하기로 하겠다.

가) 政治的·意識의存在로서의 人間

우리는 흔히 人間을 政治的 動物로 부르고 있다. 人間이 이렇게 政治的인 動物로 定義될 수 있는 이유는 人間生存過程의 存在基盤에 대한 다음의 간략한 說明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사람 삶의 存在基盤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울타리는 절대로 부정될 수 없다. 그 까닭은 사람 삶의 과정이 나와 너, 너와 나의 만남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나>라는 存在가 原初的으로 만나는 <너>는 이른바 부모라는 존재이다. <나>가 生存하고 있음은 부모라는 <너>의 存在가 生物學的으로 전제될 때 가능한 것이다.¹⁹⁾

물론 사람 삶의 存在基盤에 대한 이러한 論理展開는 生物學的인 關係가 아닌 다른 人間關係들 예를 들면 統治者와 被治者의 만남인 通常的 政治關係, 生産者와 消費者의 만남인 經濟關係, 權利者와 義務者의 만남인 法律關係에서도 그대로 연장·적용됨은 당연한 理致다.

人間은 태어나면서 부터 社會的 關係와 함께 있으며, 자라나면서도 기존의 社會體制와 함께 있다.²⁰⁾

사람은 아무리 독립·자주·자유·人格의主體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결코 이것을 現實의 社會關係로 부터 유리된 個人으로서 고립적으로 파악해서는 아니된다.²¹⁾

그래서 人間 生存構造의 존재론적 특성은 나와 너, 너와 나의 만남에 있는 것으로 理解되어야 되는 것이다.

人間 生存過程의 基盤에 대한 이런 간단한 說明을 통해서도 人間이란 存在는 언제나 나와 너, 그리고 너와 나의 만남을 부정할 수 없는 存在이고 그것의 言語的表現이 <우리>라는 사실은 明白해졌을 것이다.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차원에서의 <나>와 <너>의 存在論的 意義란 만남이 부정(→죽음)될 때 가능하므로 <우리>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나>와 <너>는 <죽은 나>, <죽은 너>일 뿐이다.

人間 삶의 存在基盤이란 이렇게 本質的으로 社會的이므로 人間은 生存過程에서 <우리>라는 울타리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存在이지만 <나>라는 生存主體가 <너>라는 生存主體와 一致될 수 없음도 또한 진실이다. 즉 <나>는 <나>가 부정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일 뿐이고 <너>역시 그 점은 동일하다.

19) E. Fromm, *Escape from Freedo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7), pp. 19~20.

A. C. Zijderfeld. 앞의 책, pp. 20~21.

20) A. Schaff, *Marx oder Sartre*, 박성수 역 (마르크스나 사르트르냐?), (인간, 1983), p. 86.

21) 瀧澤 克己, “현대인에 있어서 자유의 문제”, 풀빛편집부(편역), 대중사회와 인간문제(풀빛, 1980), p. 47.

E. Fromm의 *To Have or To Be*에서도 동일한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pp. 104~105 참조.

實存이란 各者의 고유한 存在이므로 항상 다원적이다. 25억의 人間이 있다면 25억개의 實存 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各者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고유의 개체이다.²²⁾

여기서부터 人間 生存過程의 個體(別)性 問題가 제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人間の 生存基盤을 이런 視角에서 照明한다면 人間이란 分明히 個體(別)的인 存在이기 때문이다.

人間の 生存基盤이란 이와같이 社會的인면서 個體(別)的이고, 個體(別)的인면서 社會的인 까닭으로 人間の 生存基盤에는 필연적으로 틈=존재간격이 가로놓여질 수 밖에 없다. 이 틈때문에 人間은 언제나 <個體(別)的 存在로서의 나>와 <社會的 存在로서의 나>를 同時的으로 意識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存在가 되고 있다.²³⁾

人間이란 生存過程에서 이렇게 相互對立하는 形態의 二重的 自己를 意識하면서 實踐하는 存在이므로 自己世界內에서 相互對立하는 이 二重性的 統一(合)(形式·內容이야 어떻든)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存在分裂現象이 自己世界內에서 발생되게 되어있다. 즉 <社會的 存在로서의 나>와 <個體(別)的 存在로서의 나>가 自己世界속에서 대립·충돌하여 나의 世界가 分裂하는 混亂狀態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存在分裂現象이 社會的 形態로도 發生·展開될 수 있음은 당연하며 社會的 形態의 存在分裂現象이 이른바 社會的 混亂(無秩序) 狀況으로 理解되고 있다.²⁴⁾

그렇다면 人間の 生存基盤에 本質的으로 가로놓여진 이 틈=존재간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發生·展開될 수 있는 個別的 形態 혹은 社會的 形態의 存在分裂 問題가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 포기·방치되어 왔던가. 그렇지 않다.

존재간격으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存在分裂 現象을 예방하고 치유하여 存在論的 統一(合)을 달성코자 하는 人間的 手段들이 政治·經濟制度(體制)들이고 또 그러한 手段들이 人間들로부터 正當한 手段으로 意識되게끔하는 體制構築的 手段이 法(律)制度 혹은 倫理制度들이다. 물론 이러한 存在分裂의 統一(合) 手段들에 대한 正當性的 根據는 時代와 場所에 따라 자기 다른 理論的 論理가 바탕이 되고 있었음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다.²⁵⁾

그러나 統一(合)手段의 理論的 論據差異로부터 야기되는 政治·經濟制度 및 法·倫理制度의 相異는 어떤간만에 그것과는 關係없이 여기서는 歷史이래로 人間은 지금까지 存在基盤의 틈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存在分裂問題에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 꾸준히 대처해 왔다는 데만 注目할 필요가 있다.

역사이래로 지금까지 人間들이 그렇게 存在分裂의 統一(合)=共存問題에 꾸준히 對處하지 않았음이 진실이라면 어떤 論理로 政治革命의 결과로부터 발생하는 政治體制的 變化를 說明할 수 있겠는가.²⁶⁾

22) 務台理作, 앞의 책, p.173.

23) 務台理作, 위의 책, pp.146~147, 참조

24) 앞에서 소개된 三邊博之의 論文에서는 이문제가 私的個人과 公民과의 分裂이라는 形式으로 표현되고 있다.

25) F. Pappenheim, *The Alienation of Modern Man*, 황문수역, (現代人的 疎外), (文藝出版社, 1978), p. 17.

26) 山崎 謙, "사회적 인간", 풀빛편집부(편역), 대중사회와 인간문제(풀빛, 1980), pp.200~201 참조.

歷史上의 모든 政治革命과 그 結果의 政治體制의 變化는—形式·內容이야 어떻든—存在論的 統一(合)=共存이 달성되지 않는 狀況에서 發生된 政治現象으로 理解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政治過程이란 人間의 生存過程에서 본질적으로 가로놓여진 존재 간격으로부터 必然化되는 存在分裂現象에 대한 人間의 對處過程이고 그 過程에 대한 社會的 異議提起 形態가 政治革命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러한 과정의 反復속에서 政治體制의 變化가 있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人間이란 政治的 動物로 定義될 수 있는 것 아닐까. 政治란 人間에게서 바로 生存 그 自體이다.

다른 한편 人間은 로보트가 아니라 느끼며 생각하고 생각하며 느끼는 存在이다.²⁷⁾ 물론 모든 人間이 느끼고 생각하며 생각하고 느끼는 즉 意識의 存在는 아니다. 意識作用이란 살아있는 人間에게서만 가능하지 죽은 人間에게서 意識作用이란 있을 수 없다. 죽은 人間이 무엇을 느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느끼겠는가!

살아있는 人間만이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느낄 수 있기에 人間이 生存하고 있다함이란 人間이 意識活動을 하고 있음을 意味하게 된다.

意識活動에는 思考活動, 感情活動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렇게 思考·感情活動이 意識活動이니 人間이 살아있다면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슬퍼할 수 있다. 그래서 숨을 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있는 人間이라면 기쁨에 웃을 줄 알고, 슬픔에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또 생각하는 人間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쁨에 웃을 줄 모르고 슬픔에 눈물흘리지 않고 또 생각하지 못하는 人間이라면 설혹 숨을 쉬고 맥박이 뛰고 있더라도 그는 살아있는 人間이 될 수 없다. 기쁨과 슬픔을 모르고 생각하지 않는 人間을 어떻게 살아있는 人間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살아 있는 죽은 人間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죽은 人間도 기뻐할 줄 알며, 슬퍼할 줄 알고 또 생각도 하고 있다. 살아있는 죽은 人間이라해서 기쁨과 슬픔 또 생각이 도대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까닭은 人間 살아있음의 징표인 意識活動에 앞서서 人間은 이미 世界內的 存在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의식에 존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음으로서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상식에 부합되기 때문이다.²⁸⁾

人間 살아있음의 징표인 意識活動에 앞서 意識活動의 對象이 必然적으로 先在되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맥박이 뛰는 人間에게서는 意識活動의 中止란 있을 수 없다.²⁹⁾

그렇다면 왜 살아있는 人間과 살아있는 죽은 人間은 區別되어져야 할까. 그것은 意識活動의 對象이 살아있는 죽은 人間들로부터는 잘못 선정되고 있다는 데 있다.

(政治的) 無關心이란 一種의 對象選定이 그릇된 意識形態이다. 關心을 말 그대로 풀이하면 ‘가치 있는 것에 注意하는 심적태도이다. 그런데 ‘注意’라는 명사의 의미에는 ‘의식작용을 어떤 對象에

27) A. C. Zijderfeld, 앞의 책, p. 43.

28) 務合理作, 앞의 책, p. 155.

29) 申午鉉, 自由와 悲劇, p. 53. 참조

기울임'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으므로 '注意'라는 명사의 이런 意味를 상기시킬 때 關心이란 '가치있는 것에 의식작용을 기울이는 심적태도'로 解釋할 수 있다.

이렇게 볼때 無關心이란 '어떤 대상이 價値가 없기에 의식작용을 기울이지 않는 심적태도로 定義할 수 있다. 그런데 人間이 어떤 대상에 대해 전적으로 意識作用을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對象에 感情活動이 介入되어서는 안되며 만약 어떤 對象으로부터 感情活動이 시작되고 있다면(그 對象에 대한 主觀的 判斷이 어떻든간에) 그 對象으로부터 思考活動도 中止할 수 없음을 注意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때문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또 싫어하는지를 反省的으로 思考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며 또 싫어하기 때문이다. (反省的 思考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쁨, 슬픔 그리고 증오란 心的狂亂일 뿐이다.)

그런 까닭으로 「人間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無關心하다」라는 命題는 「어떤 對象이 價値가 없다고 意識되었기에 人間이 그 對象에 대해서 意識作用(活動)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意味로 解釋되어야 되는 것이다.

人間의 意識作用(活動)이란 이러하기에 無關心이란 어떤 대상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의식된 이후에 人爲的으로 意識活動이 中止되는 意識形態이고, 意識活動의 人爲的 中止形態가 無關心이다.

人間의 生存過程을 意識活動의 過程으로, 意識活動의 人爲的 中止形態를 無關心으로 解釋한다면 政治的 無關心이란 生存을 否定하는 意識形態이다. 生存을 否定하는 살아있는 죽은 人間의 意識形態가 政治的 無關心이다.

왜! 우리는 앞에서 人間 生存過程의 存在基盤이라는 측면에서 政治的 意義를 再構成해 왔었다. 그 결론이 政治란 人間에게서 生存 그 自體였다. 人間이란 그와같이 政治的 場을 벗어날 수 없는 生存主體라는 앞의 결론이 진실이라면 人間은 政治的 諸問題로부터 自己의 意識活動을 中止시킬 수 없음도 또한 否定할 수 없는 眞實이 아니겠는가. 政治的인 存在가 어떻게 政治的 問題=存在論的 統一(合)의 問題=共存의 問題로부터 自己의 意識活動을 人爲的으로 中止시킬 수 있을까. 살아있는 人間이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 政治的無關心·非政治的有關心

人間이란 政治的 存在이고 意識的 存在이다. 政治的·意識的 存在가 人間이기에 人間은 生存過程에서 政治的 諸問題로부터 自己를 도피시킬 수 없는 存在이고 또 도피시켜서도 안되는 存在이다. 그래서 政治的 問題로부터 自己를 도피시킨 意識形態인 政治的 無關心은 人間의 生存 그 自體를 否定하는 살아있는 죽은 人間의 意識形態로 解釋되어야 되는 것이다. 政治的 無關心이 人間의 生存을 否定하는 (疎外된) 意識形態가 아니라면 플라톤이 일찌기 政治에 無關心한 市民을 백치(idiot)로 선언할 수 있었겠는가.³⁰⁾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現代의 大衆에게서는 이러한 白痴의 症傷이 만연되고 있음을

30) S. Giner, 앞의 책, p. 151.

부정할 수 없는 現實이 되어 있다.³¹⁾

더우기 개인은 점점 더 행위의 靛료주의적 양식에 순응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개인은 기능인의 복종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구조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 사회의 다수는 이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으며 순응하면서 수동적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늘어난 여가 시간에 이들 순응주의자들은 풍요한 사회의 상품들과 매스미디어의 기성품적 의견을 소비하는 자신들의 사적인 세계에 움추러 들어간다. 복잡한 여러 사회적 정치적 제문제들은 그들의 작은세계를 초월하고 그들의 삶으로 부터 배제되었다.³²⁾

그들은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정치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들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전가시킨 후 다시 자신이 하던 평소의 일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다음 선거까지 시민들은 시민적권리를 포기한 채 단순히 소비자, 노동자, 공공교통수단과 가스의 이용자로 살아갈 뿐이다.³³⁾

無關心에서 혹은 無力함에서 그 모든 非政治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표하는 것이 마치 한 계획에 대해서인 것처럼 非政治性에 표를 던진다. 찬성을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공민권을 포기할 정도의 극단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자기대신 모든 것을 해 줄 한 사람의 손에 公共의 일을 맡겼다. 이제 그들은 즐거분하게 되었다. 단순히 남편, 아들, 고용인, 당구 챔피언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시민이 아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다.³⁴⁾

現代의 大衆은 이렇게 政治的 公民主로서의 自己存在에 대해서는 별다른 關心이 없고, 단지 남편과 아들, 노동자와 소비자, 공공교통수단과 가스의 이용자 혹은 당구 챔피언으로서의 自己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性向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물론 그러한 自己도 重要하다.

그러나 政治的 公民主로서의 自己를 武裝解除해 버리고 단지 私的 自己에게만 매달리게 되면, 그러한 疎外된 形態의 意識·實踐活動이 人間 삶의 다른 領域에 까지 확산되고 또 그 逆의 과정도 성립되어 現代 憲政狀況에서 發生되고 있는 政治疎外가 不可逆的 現象으로 意識되는 결과 政治疎外現象이 지워버릴 수 없는 現實로 굳어질 수 있다는 데 注意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은 政治的 問題로부터 大衆이 自己를 武裝解除시키고 이른바 私的 領域에 沒入하더라도 私的 領域에서의 王國建設도 本質的으로 人間性을 喪失한 形態의 王國建設에 불과할 뿐이고, 동시에 私的 領域에서의 이러한 限界에 대해 大衆이 批判的으로 省察하고 實踐하지 않는다면 大衆의 政治疎外는 오히려 완벽한 단계로 發展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그 까닭은 政治關係의 人間性喪失→政治的

31) F. Pappenheim, 앞의 책, pp.44~62.

C. Julien, 앞의 책, pp.80~81, p.141.

A. C. Zijderveld, 앞의 책, p.158.

32) A. C. Zijderveld, 위의 책, p.105.

33) C. Julien, 앞의 책, p.111.

34) J. P. Sartre, 상황, 박정자역(사계절, 1983), p.129.

동일한 견해가 F. Ferarotti의 앞의 책, 'An Alternative Sociology'에서는 'The paradise is land of the family'라는 용어로 表現되고 있다. pp.149~151 참조.

35) E. Fromm, *The Sane Society*, p.141 참조.

高橋徹, 앞의 논문, p.233 참조.

S. Giner, 앞의 책, p.151 참조

無關心→非政治的 有關心→非政治關係의 人間性喪失→政治關係의 人間性喪失로 순환되는 과정이 大衆의 日常生活에서 어떤 形態로 再生·反復되고 있는 가를 간략히 考察해보면 쉽게 알아낼 수가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政治的 問題로부터 自己를 도피시키고 있는 現代의 大衆은 政治이외의 領域=私的領域에 相當한 關心을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領域에서 전개되고 있는 大衆의 삶 속에서도 (大衆이 豫想했던 아니던) 人間性喪失의 症傷이 나타나고 있음은 오늘날 私的領域의 象徴이라 할 수 있는 經濟生活의 側面에서 充分히 立證될 수 있다.

人間的 經濟生活이란 (說明의 便宜를 위해) 알기쉽게 兩分하면 生産活動과 消費活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 데 生産活動이라는 側面에서 비추어 볼때 現代의 大衆은 기계나 조직의 부분품화되고 있는 직장(작업장)으로 부터는 가급적이면 自己를 도피시키려 하고 오로지 消費活動의 순간에서 自己의 人間性을 體驗·確認하려는 性向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³⁶⁾ 人間生存過程의 또 다른 本質的要素인 經濟活動에서도 大衆은 이렇게 二律背反性을 드러내고 있지만,³⁷⁾ 여기서는 그 問題는 차지하고 大衆이 거의 전적으로 熱과 誠을 쏟고있는 消費活動에서도 人間性이 상실되고 있다는 點을 指示하는데 그치겠다.

現代人은 生存過程에서 ‘消費者가 王이라’는 구호에 거의 일상적으로 對面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만큼 消費者로서 大衆은 自己王國을 建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領域에서는 相當히 부여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大衆이 消費生活속에서 거의 日常적으로 對面하고 있는 이 구호는 거꾸로 이렇게 解釋할 수도 있다. ‘消費 못하는 者는 王이 될 수 없다’로. 이렇게 볼때 政治領域으로부터 도피하여 私的領域으로 沒入한 大衆의 立場에서 消費行爲가 갖는 意味는 自信이 現實적으로 王으로 군림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까지 부각될 수 있다.

消費가 人間 生存過程에서 不可缺한 要素임은 물론 否定할 수 없는 眞實이지만 現代의 大衆에게서는 消費行爲가 이렇게 自信의 私的王國 建設과 직결되고 있어서인지, 대충이 消費問題에 쏟고 있는 熱과 誠은 가히 病的인 狀態로까지 치달고 있다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³⁸⁾

왜! 消費能力이 없는 人間이라면 自信의 私的王國 建設이 現實적으로 不可能하기 때문에 自信의 消費能力과 관련되고 있는 根本的 問題들에 최대의 關心을 기울이고 또 그것들을 批判적으로 省察함이 마땅하겠으나 現代의 大衆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私的王國 建設의 現實的 不可能性을 눈요기(eye-shopping)로 까지 메꿔가면서 장래의 消費可能性을 접치고 있는 幻想에 사로잡혀 있는 정

36) E. Fromm, 앞의 책, p.125, p.163

37) E. Fromm, 위의 책, pp.177~179.

F. Pappenheim, 앞의 책, pp.98~99.

F. Ferarotti, 앞의 책, p.161.

38) E. Fromm, 앞의 책, pp.131~136 참조.

C. Julian, 앞의 책, pp.154~159 참조.

小林直樹, 앞의 책, p.274.

高樹徹, 앞의 논문, p.238.

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⁹⁾

現代의 大衆은 설혹 自信들이 현재적으로는 帝王의 地位에 군림할 수 없지만 장래에는 帝王의 地位에 등극할 수 있다는(心情的) 幻想속에 사로잡힌채 私的 王國을 建設할 수 있는 현실적 계기인 消費問題로부터 한 순간도 눈을 팔지않고 있는 現象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따름이다.

大衆의 최대관심사가 消費를 통한 私的 王國 建設에 (거의 病的일 정도로 이렇게 集中되고) 있기에 더 좋고 더 많고 더 새로운 것을 소비하는 人間이 덜 좋고 덜 많고 덜 새로운 것을 消費하는 人間보다는 더 똑똑한 人間으로 大衆의 意識世界에 비추어 질 수 있는 것이다.⁴⁰⁾

여기서부터 소의된 삶의 또 다른 形態가 전개되는 것이다. 人間的 消費라는 形態로서의 삶의 패턴이 아니라 消費的 人間이라는 形態의 삶의 패턴이 大衆으로부터 전개되고 있으니까.⁴¹⁾

물론 消費가 人間生存의 再生産을 위해서 必要不可缺한 要素임은 分明하나 消費는 人間生存의 維持手段으로서만 價値가 있는 것이지 人間이 거의 전적으로 消費에 매달려서 人間이 消費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形態의 삶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으로 더 많고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消費하는 人間이 덜 많고 덜 새롭고 덜 좋은 것을 消費하는 人間보다는 더 똑똑한 人間으로 意識되고 있는가!

現代 大衆의 최대관심사인 消費를 媒介로한 私的 王國 建設에서조차도 疎外된 形態의 意識作用이 전개되어 人間에 대한 解釋이 이렇게 消費力量을 基準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 할 때 經濟關係에서의 人間性喪失도 明白한 事實이 되고 있는 것이다.⁴²⁾

이렇게 볼때 판료(정치지도자) 집단을 具體的인 人間으로 意識하지 못하는 意識의 倒錯形態가 經濟關係에서는 消費力量이 있는 人間을 具體的인 人間으로 意識하지 못하는 形態로 轉換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政治的 無關心이나 非政治的 有關心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⁴³⁾ 그 까닭은 政治關係의 人間性喪失로부터 야기된 大衆의 政治的 無關心을 대신하여 大衆의 意識世界를 메꾸고 있는 意識現象인 非政治的 有關心 그것도 (消費關心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때) 人間的 形態의 意識으로서 解釋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⁴⁾

39) E. Fromm, 앞의 책, pp. 131~136 참조.

F. Ferraroti, 앞의 책, pp. 161~163 참조.

40) E. Fromm, *Escape from Freedom*, p. 104 참조.

41) C. Julien, 앞의 책, p. 164, 참조.

E. Fromm, 앞의 책, pp. 131~137 참조.

42) F. Fromm, *To Have or To Be*, p. 27 참조.

E. Fromm, *The Sane Society*, p. 137 참조.

43) 이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E. Fromm의 *'The Sane Society'*의 pp. 184~191를 참조하라.

44) E. Fromm, 위의 책, pp. 110~120, pp. 120~151 참조.

E. Fromm, *To Have or To Be*, pp. 76~77 참조.

人間意識의 이런 病理現象에 대해서는 Fromm의 *'Man for Himself'*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8). 특히 pp. 62~82를 참조하라.

IV. 政治的無關心과 大衆媒體

政治的·意識的 存在인 人間(大衆)이 政治的 問題로부터 自己를 도피시키고 非政治的 領域에서 自己의 人間性을 거의 病的으로 體驗·確認하고자 했으나 政治的 無關心과 非政治的 有關心이 똑같이 人間의 形態의 意識이 아니라 疎外된 形態의 意識이어서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동전의 앞·뒷면에 不過하다함은 앞에서 밝혀 왔다. 現代 大衆의 삶이 政治領域은 물론이고 非政治的 領域에서도 그렇게 소외된 形態로 전개되고 있는 까닭으로 大衆의 政治疎外가 自信들의 意識·實踐世界속에서 否定될 수 없는 現實로 굳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人間(大衆)은 이렇게 歷史的·社會的 狀況에 制約당할 수 밖에 없는 存在이지만 동시에 自己를 制約하고 있는 歷史的·社會的 狀況을 否定할 수 있는 存在임도 또한 眞實이다.⁴⁵⁾

人間(大衆)을 制約하고 있는 歷史的·社會的 狀況이란 人間(大衆)自信에 의해서 意識·實踐의 으로 否定당할 수 있음에도 왜 政治關係의 非人間的 形態를 正當化해 주는 관료주의 神話 나아가서 非政治的 神話에 대한 批判的 思考가 活性化되지 못하고 오히려 政治的 無關心이라는 소외된 形態의 意識世界속에 大衆이 埋沒되어가고 있을까.

勿論 거기에는 여러가지 다른 形態의 政治的 要因, 政治外的 要因들이 變數로서 作用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分析·解明할 수 있는 力量이 論者에게서는 不足하므로) 여기서는 그 變數로서 現代의 大衆媒體를 선택해서 大衆媒體의 기능에 대한 分析·解明을 통해서 위에서 제기된 問題에 대한 解答의 실마리를 얻어내기로 하겠다.

오늘날 大衆媒體들(신문, 라디오, TV, 영화등)이 人間(大衆)의 生存活動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 해도 지나칠 정도가 아니다. 그 까닭은 現代의 大衆은 政治的·經濟的 情報, 기타 日常生活과 관련되는 情報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現實的으로 상실하고 있고 그러한 情報들을 거의 大衆媒體에 依存하여 공급받고 있는 實情이기 때문이다.⁴⁶⁾

現代의 大衆은 이와같이 政治·經濟的 情報 혹은 기타의 日常生活 情報·資料까지도 大衆媒體에 거의 전적으로 依存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狀況에 빠져 있으므로 大衆媒體의 역할에 따라 大衆의 生存活動 즉 意識活動 및 實踐活動이 전혀 다른 樣相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은 分明한 事實이다. 왜냐하면 人間의 意識活動에는 情報·資料들이 前提的으로 要求되는데, 大衆媒體들로부터 공급되는 情報·資料들의 內容에 따라 大衆의 意識活動의 樣相이 달라짐은 물론이고 그 결과로부터 實踐活動의 樣相도 아울러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現代의 大衆媒體와 人間(大衆)과의 關係를 이렇게 前提할 때 오늘날 大衆媒體가 大衆에게 끼치는

45) 瀧澤克己, 앞의 논문, p. 45, p. 60.

人間에 대한 이와같은 해석은 거의 상식적인 이야기다.

G. Novak의 '실존과 혁명'(p. 53, pp. 324~329), 申午鉉의 '自由와 悲劇'(p. 7), A. Schaff의 '마르크스나 사르트르냐?'(pp. 110~124)등 참조.

46) 秋元律郎, 앞의 책, p. 200.

C. W. Mills, 파워 엘리트, p. 407.

47) 高橋徹, 앞의 논문, p. 239.

秋元律郎, 앞의 책, p. 201.

영향은 어떠한가. 그 關係가 결코 肯定的으로만 評價될 수는 없다.⁴⁸⁾ 現代의 大衆媒體가 大衆의 意識·實踐世界에 끼치는 영향은 相當히 否定的으로도 評價될 수 있는데, 그 根本的인 原因은 大衆媒體의 商業主義化 傾向과 體制內化 傾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大衆媒體의 商業主義化 傾向은 大衆媒體와 廣告資本(廣告收益)과의 關係에서 照明되어야 한다. 물론 大衆媒體도 企業이기에 企業으로서의 大衆媒體가 뛰어 넘을 수 없는 自己限界가 大衆媒體側에 의해서 設定될 수 밖에 없겠지만, 이 限界때문에 大衆媒體가 廣告資本과 相互 密着·依存하는 경우 大衆의 意識·實踐世界에 相當한 問題가 발생될 수 있음에 留意해야 한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긴장중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으로 그 상품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긴장,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인 모습과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등이다.⁴⁹⁾

유행 자체가 오로지 매스·미디어의 발전만이 가능케하는 대량적이고 집요하며 강제적인 광고와 분리할 수 없다. 대제단사의 천재성, '그들의 발명정신, 자발성, 현대의여인'에 관한 감각등에 관한 전문적인 보도기자들의 절찬기사들 보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다.⁵⁰⁾

大衆의 소비욕망을 끝없이 자극하고 또 그것의 現實的 結果인 流行이란 大衆媒體와 廣告資本(收益)과의 密着·依存現象이 낳은 社會的 產物로 解釋할 수 있다면, 앞장에서 밝혀진 經濟關係에서 大衆의 人間性喪失 問題에 대한 責任이 大衆側보다는 大衆媒體側에 있다는 論理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⁵¹⁾

大衆媒體의 商業主義化 傾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판매부수나 시청율을 높여서 廣告資本으로 부터 더 많은 廣告料를 받아내기 위한 手段으로 大衆媒體들이 低質物(俗物)的인 情報·資料들을 거의 의도적으로 大衆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러한 俗物的인 情報·資料들의 代表的 實例가 有名한 연예인, 政治家, 고급관리 혹은 운동선수들의 私生活 폭로·추적물들이고 또 폭력위주의 내용들이 담겨진 TV화면이나 영화들이다.⁵²⁾

大衆媒體들로부터 이러한 俗物(低質物)的인 情報·資料들이 大衆에게 反復的으로 공급되어질 때 大衆의 意識·實踐世界에 어떤 現象이 발생하겠는가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고급관리, 혹은 운동선수들의 화려한 私生活이라던지 非道德的 私生活 또 非人間的 폭력행위들에 대해서 大衆이 처음에는 心情的으로 拒否反應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기사나 화면이 反復的으로 大衆에게 공급될 경우, 大衆의 意識·實踐世界에서 그것에 대한

48) C. W. Mills, 현대사회와 정치구조, 박노영(공역) (돌베개; 1981), pp.100~113 참조.

宮坂富之助(共編), 豊かに生きる權利 (京都: 法律文化社, 1972), pp.219~226.

C. Julien, 앞의 책, pp.232~237.

S. Giner, 앞의 책, pp.162~163.

49) C. W. Mills, 파워엘리트, p.418.

50) M. Durveger, 앞의 책, p.140.

51) F. Ferarroti, 앞의 책, pp.162~163.

E. Fromm, *Escape from Freedom*, pp.110~111.

52) C. Julien, 앞의 책, p.199.

拒否反應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오히려 社會的인 차원에서 도덕적 타락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데 注意할 필요가 있다.⁵³⁾

(대중매체에서 공급되는 정보·자료의) 내용들이 비도덕적(immoral)이라면, 상당히 많은 아둔한 인간들(특히 어린이)은 그러한 내용을 行動을 위한 규범으로 인식·수용하는 경향이 강하다.⁵⁴⁾

大衆媒體들에 의해 人間(大衆)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大衆媒體에 의해 人間性 喪失形態의 삶 즉 疎外된 形態의 삶이 더욱 促進되고 있음을 우리는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다음으로 大衆媒體의 體制內化 傾向이다. 大衆媒體의 體制內化 傾向을 促進시키는 중요한 要因의 하나가 大衆媒體의 巨大·寡占化現象에 있는데, 그것은 企業이 거대화하면 할수록 그 自體 體制內化 혹은 體制와 一體化해서 즉 기존체제와 그 운명을 함께 하는 데서 巨大化의 基盤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大衆媒體側은 現象維持 혹은 現象肯定的인 情報나 資料들만을 任意로 선택하여 보도하거나 혹은 支配集團의 宣傳道具로 轉落하게 되는 것이다.⁵⁶⁾

現代의 大衆은 生存活動 즉 意識·實踐活動에 필요한 情報·資料들을 거의 전적으로 大衆媒體에 依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實情인데, 앞에서 分析·解明된 大衆媒體의 逆機能에 비추어 볼 때 現代의 大衆媒體들은 非人間的 形態의 人間 삶의 문제=疎外된 形態의 人間 삶의 문제들을 大衆이 批判的으로 省察하거나 혹은 實踐할 수 있는 現實的可能性을 大衆에게 提示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있다고 理解해도 커다란 無理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왜! 大衆媒體의 商業主義化 傾向으로부터 大衆은 더욱 消費의 奴隸 내지는 향락·暴力의 奴隸로 轉落되고 있는 性向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否定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現象은——大衆의 政治的 無力이 加速化되어 그에 대한 大衆自信의 心的補償策으로——大衆이 더욱 더 非政治的 有關心속으로 埋沒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사회적 징표로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大衆媒體의 體制內化傾向으로부터 大衆媒體가 大衆에게 政治·經濟에 관한 情報·資料들을 거의 획일적으로 공급하게 될 뿐이므로 大衆의 政治關係에 대한 批判的 省察과 實踐은 더욱 무디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3) C. Julien, 앞의 책, pp. 199~200, pp. 208~212.

瀧澤克己, 앞의 논문, p. 36.

54) S. Giner, 앞의 책, p. 173.

55) 현대의 도덕적 불만에 대해서는 C. W. Mills, '현대사회와 정치구조, pp. 184~192; E. Fromm의 *Man for Himself*, pp. 62~117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56) C. W. Mills 파워엘리트, p. 413.

秋元律郎, 앞의 책, pp. 184~197 참조.

宮坂富之助(編), 앞의 책, pp. 12~13 참조.

S. Giner, 앞의 책, p. 154.

D. McQuail, *Towards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 p. 15, pp. 30~31.

石村善治(編), *知る權利*(東京:有斐閣, 1974), p. 8.

(문제)는 이들 미디어가 (주목)을 끌기 위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에 가하고 있는 속물성과 고정 관념화 하는것만 아니라……미디어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일종의 心理的 文盲狀態(psychological illiterary)이다.⁵⁷⁾

그런 까닭으로 大衆의 政治疎外=國民主權의 名目化現象은 더욱 견고한 現實로 굳어가고 있고, 大衆이 政治的 無關心으로 부터 脫出하여 大衆民主體制의 理念基盤인 國民主權理念의 이데올로기성을 批判的으로 省察·暴露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狀況이 오늘의 現實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V. 끝 맺 으 며

現代의 憲政狀況이란 政治의 場에 大衆이 흡수당하면서 배제당하고, 배제당하면서 흡수당하는 二律背反的인 憲政狀況이다. 現代의 憲政狀況은 이렇게 二律背反的이어서 그 二律背反性이 大衆에게 露出되면서 狀況에 대한 社會的 異議提起가 전개됨이 마땅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그 까닭이 살아있는 죽은 人間의 意識形態인 大衆의 政治的 無關心 現象에 있다함은 지금까지의 논술과정으로 부터 충분히 認識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大衆의 政治的 無關心이란 疎外된 政治狀況(構造)의 產物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大衆의 政治的 無關心으로부터 疎外된 政治狀況=國民主權의 名目化現象이 現實로서 굳어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眞實이다.

大衆이 政治狀況에 無關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즉 大衆이 政治的 問題에 批判的으로 省察하고 實踐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는다면 관료주의 신화 혹은 非政治神話는 신화로서 生命力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화들이 신화로서 生命力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憲政狀況의 二律背反性이 大衆으로부터 충분히 은폐되고 있음을 意味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은폐형태의 최고태라 할 수 있는 國民主權神話도 나타나게 된다.

몇몇 사회는 스스로 「민주적」이라고 선언하였다.……그러나 이들 사회는 민주주의에 이르는 몇발자욱만 내딛었을 뿐이며,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단지 이들 사회는 국민이 주권자라고 되풀이 강조해 왔으므로 국민은 결국 그대로 믿어버리고 말았다.⁵⁸⁾

大衆(國民)은 主權者가 아님에도 이렇게 自身들이 主權者라고 믿고서 살아갈 때 國民主權理念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⁵⁹⁾

그러나 國民主權理念은 神話化되어서는 안되는 理念이다. 國民主權理念이 神話化되고 있다면 그

57) C. W. Mills, 파워엘리트, p. 414.

58) C. Julien. 앞의 책, p. 170.

59) 이 문제에 대해서는 小林直樹의 앞의 책, pp. 161~163. 와 杉原泰雄의 '主權と自由' (芦部信喜編, 近代憲法原理의 展開 I,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6), pp. 3~54를 참조하라. 또 C. W. Mills의 파워엘리트, p. 421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것은 治者集團, 被治者集團 모두에게 悲劇(的)이다.

왜! 人間에게서 政治란 生存 그 自體이고 또 意識·實踐的 存在로서 人間은 주어진 歷史的·社會的 狀況을 否定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政治關係의 非人間的形態=國民主權의 名目化=政治 疎外는 永遠한 狀況으로 存立할 수 없고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社會的 異議提起가 발생되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손실(人的·物的損失)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現代의 大衆民主體制에서 상당히 희미해져 간다고 볼 수 있는 國民主權理念을 現實化시킬 수 있는 方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물론 새로운 制度(現代社會에서 상당히 클로즈·업되고 있는 움부즈만 제도가 그 대표적 실례 가운데의 하나이다)의 定立도 중요한 意味를 가질 수 있겠지만, 制度 역시 人間의 產物에 지나지 않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대로이다. 制度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人間의 意識·實踐世界가 病들어 있다면 制度는 오히려 人間에게 害惡을 끼치지 않던가.

문제는 制度에 있는 것이 아니다. 人間이 人間을 추상적형태 혹은 物化的 形態로 意識하게끔 하는 現實的 地盤들의 體質改善과 그것을 現實化시키려는 人間(大衆)들의 끊임없는 批判的 省察에 있다.

그렇다면 大衆이 批判的으로 무엇을 省察해야 되겠는가. 그 批判的 對象은 왜 大衆 자신들이 政治的 問題로부터 도피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反問하는데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參 考 文 獻

- 申午鉉, 自由와 悲劇: 사르트르의 人間存在論, 民衆書館, 1979.
- Duverger, Maurice, JANUS(서구의 두 얼굴), 김준희 譯, 종로서적, 1982.
- Horowitz, I. L. ed., *Power, politics, & People*(現代社會와 政治構造), 박노영·이호열 譯, 돌베개, 1981.
- Julien, Claude, *Le Suicide des démocraties*(民主主義의 自殺), 柳基性 譯, 靑史, 1980.
- Mills, C. Wright, *The Power Elite*(파워엘리트), 진덕규 譯, 한길사, 1979.
- Novak, George, *Existentialism vs. Marxism: Conflicting Views on Humanism*(실존과 혁명), 김영숙 譯, 한울, 1983.
- Pappenheim, Fritz, *The Alienation of Modern Man* (現代人的 疎外), 黃文秀 譯, 文藝出版社, 1978.
- Sartre, Jean-Paul, *Situation V* (상황: 식민주의와 新植民主義), 박정자 譯, 사계절, 1983.
- Schaff, Adam, *Marx oder Sartre: Ver such einer Philosophie des Menschen* (마르크스나 사르트르나: 개인의 실존과 사회성의 고찰), 박성수 譯, 인간사, 1983.
- Zijderveld, Anton C., *The Abstract Society*(추상적 사회: 현시대에 대한 문화적 분석), 윤원일 譯, 종로서적, 1983.
- Faunce, William A., *Problems of an Industrial Society*, 2nd ed., New York: McGraw-Hill, 1981.
- Ferrarotti, Franco, *An Alternative Sociology*, trans. Pasqualino and Barbara Dolumbaro,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1979.
- Fromm, Erich, *Escape from Freedom*,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60.
- , *Man for Himself: an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Ethics*,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1978.

- _____, *The Sane Society*, London and Henley: Routledge & Kegan Paul, Paul, 1976.
- _____, *To Have or to Be?*, New York: Harper & Row, 1976.
- Giner, Salvador, *Mass Society*, New York and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1976.
- Hummel, Ralph P., *The Bureaucratic Experience*, 2nd ed.,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2.
- McQuail, Dennis, *Towards a Sociology of Mass Communications*, London: Collier Macmillan, London: Collier Macmillan, 1976.
- Ollman, Bertell, *Alien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務合理作 外, 大衆社會의 人間問題, 풀빛편집부 編譯, 풀빛, 1983.
- 務合理作, 哲學概論: 世界・主體・認識・實踐, 홍운기 譯, 한울, 1982.
- 秋元律郎, 權力の構造, 東京: 有斐閣, 1982.
- 石村善治・奥平康弘 編, 知る權利, 東京: 有斐閣, 1974
- 小林直樹, 憲法の構成原理,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81.
- 宮坂富之助・北野弘久 編, 豊かに生きる權利, 京都: 法律文化社, 1972.
- 芦部信喜 編, 近代憲法原理の展開 I,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6.
- 渡邊幸博, サルトルの哲學: 人間의 歴史, 京都: 世界思想社, 1981.
- 日本政治學會 編, 政治學의 基礎概念, 東京: 岩波書店, 1981.